농어촌公,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해 대대적 조직개편

사회적가치추진단·전담부서 등 신설
지방조직 격상… 지사 수 93개로 확대

지난달 6월 5일 최규성 사장이 전북 부안 계화 청호지구 배수장을 현장 방문해 농민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사회적 가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12개의 지방조직을 지사로 전환·격상하는 한편, 공사의 사회적 가치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적가치추진단', 'KRC 개혁위원회', 사장 직할의 '준공점검 전담부서' 등을 신설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지난 2월 말 취임한 최규성 사장의 경영 철학이 담긴 것이다. 최 사장은 취임 후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의 기업 가치로 설정하고, 그동안 전국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공사에 따르면 현장 방문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의견들은 농어촌지역이 고령화와 공동화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지역 숙원사업 발굴, 지역과 소통·공감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주력사업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 등을 공사가 나서서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7월 1일자로 지부로 축소됐던 12개의 지방조직을 지사로 전환·격상시켜 지사 수를 기존 전국 총81개에서 93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공사는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 발굴과 지역공동체가 존속·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정에 국민이 함께 참여·공감·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사회적가치추진단'을 신설했다. 기존 사업도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국토 균형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등 대응에 적합한 구조로 변화하기 위해 'KRC개혁위원회'와 사장 직할의 '준공점검 전담부서'를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

공사는 농업구조변화에 대응한 미래형 생산기반에 대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식량안보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지역별 생산기반정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논밭겸용이 가능한 농지범용화 시범사업(3개소), 시설작물 등 고품질 생산지원을 위한 맑은물공급사업(4개소)이 추진된다.

아울러 수출전문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고 2020년까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9430ha를 첨단, 친환경, 생태관광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사는 농지를 활용해 사람이 돌아오고 미래가 있는 농촌 만들기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농민의 성장단계별(진입(2ha)→성장(2~6ha)→전업농(6ha 초과)→은퇴농)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올해 농지은행을 통한 지원면적 1만6000ha의 약 25%인 약4000ha를 2030세대에 지원하고, 경영위기 농가에 예산과 컨설팅 지원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사업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사장은 "공사 본연의 업무가 바로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실현이 되도록 조직과 사업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농어촌 지역공동체를 존속·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공사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해양환경공단이 29일 열린 경영혁신 워크숍에서 신비전 선포식을 진행한 후 구성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新비전 선포로 새로운 도약

해양환경공단이 새로운 비전 선포로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2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본사 및 소속기관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국민 행복을 위한 해양환경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공단의 신 비전은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국민 With KOEM'으로 청정과 안전의 가치로 이루어진 건강한 바다를 통해 풍요로운 미래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행복 추구에 기여하겠다는 공단 임직원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그간, 공단은 이러한 비전 수립을 위해 일반국민, 고객, 해양관계자,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현장의견을 모아왔다.

특히, 비전 달성을 위해 2027년까지 특별관리해역 2등급이상 100% 달성, 해양오염사고 예방률 65% 이상 달성, 양질의 일자리 3000개 창출 등의 8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건강한 해양가치 보전 ▲안전한 해양가치 구현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사회적 가치 실현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기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공단은 국민행복이 실현되는 건강한바다를 위해 본연의 업무에서 역량을 극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보령 카약·제주 서핑… 지역별 레저 10選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휴가철 맞아 수상·체험형 레포츠 등

홍천에서 즐기는 포레스트어드벤처. /강원 홍천 리더스마케팅커뮤니케이션즈

'보령의 해양 카약, 제주의 바다서핑, 문경의 권총 사격, 홍천 포레스트어드벤처(숲모험)….'

정부가 지역마다 특화된 레저관광 프로그램 1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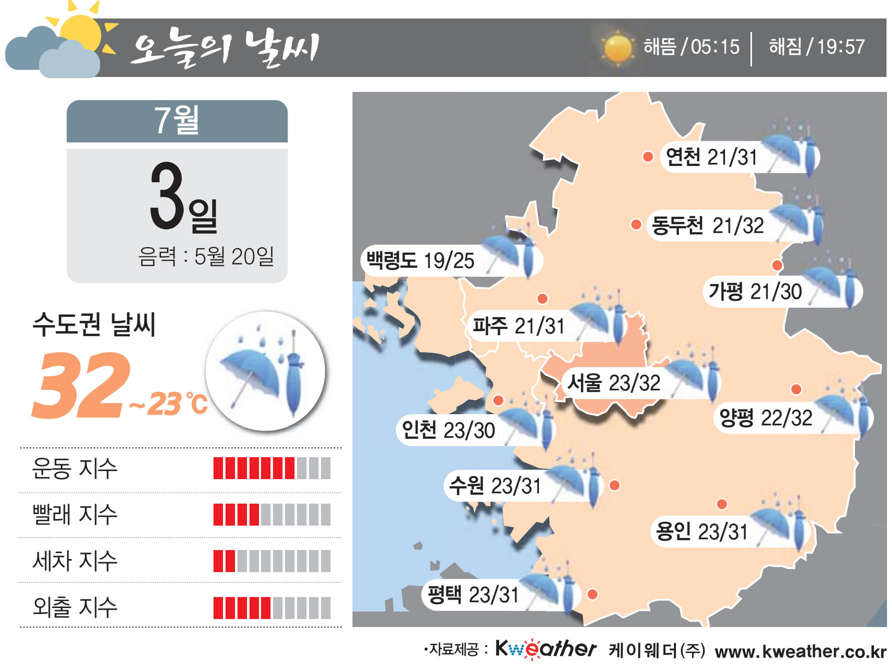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레저문화를 확산하고 여행업계의 레저관광상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2018년 지역 특화 레저관광 프로그램 10선'을 선정·발표했다.

각 프로그램은 수상 레포츠(카약, 래프팅, 서핑, 카누, 조정 등), 체험형 레포츠(짚라인, 자전거 등)와 지역별 관광명소를 포함한 1박 2일 일정으로 레저와 지역관광을 함께 체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주요 선정지역과 레저프로그램은 ▲충남 보령(용두해수욕장, 해양 카약, 레포츠) ▲강원 홍천(카약·SUP투어, 숲 테라피 트레킹) ▲제주(서핑 강좌, 보드 제작 체험, 제주 야생 돌고래 탐사) ▲강원 강릉·속초·고성·양양(드론 체험, 컬링 게임, 서핑, 해변 승마, 산악 ATV, 요트, 바다 래프팅, 카약, 스노클링) ▲경북 문경(짚라인, 레일바이크, 권총 사격) ▲강원 춘천(의암호 자전거, 킹카누, 농촌체험마을) ▲충북 충주(탄금호 자전거, 조정, 짚라인) ▲강원 홍천(가리산자연휴양림 짚라인, 루지, 서바이벌 게임, 포레스트어드벤처) ▲강원 평창(휘닉스 평창 포레스트어드벤처, 짚라인, 워터파크)▲경북 울릉도(카누, 스노클링) 등이다.

여행프로그램은 2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및 판매여행사별 홈페이지와 모바일, 카페,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을 통해 홍보된다. 또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연계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상품 이용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해당 상품별 일정과 예약 및 구매 방법은 여행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



aT, 제1회 '서울 HMR 쿠킹&푸드 페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편의성을 강조한 가정간편식(HMR)이 급성장함에 따라 HMR을 주제로 한 '제1회 서울 HMR 쿠킹&푸드페어'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모두의 간편식! 주방없는 레스토랑'을 컨셉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며, 국내 가정간편식 산업의 우수제품부터 신기술까지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또한, 국내 HMR상품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HMR선진국인 일본의 HMR서밋, 미쯔비시식품, 야오코, 미쯔강와 유럽의 리로이 시푸드을 비롯 국내 CJ, AC닐슨 등 전문가들이 대거 연사로 참여하는 'HMR 월드마켓포럼'을 4일과 5일 개최한다. 이를 통해 HMR상품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함께 토론함으로써 정보 공유를 통한 기회 창출의 장이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aT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우수 HMR제품기업들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가 확대됨으로써 국내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T 백진석 식품수출이사는 "편리성, 소용량, 가치소비를 중심으로 연평균 14%씩 성장하고 있는 HMR시장의 성장세에 견인해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중소 농식품기업 발굴·판로확대 기회제공을 통해 농수산식품산업의 시장확대와 공익성 추구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송파구 서울동부지사 개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 서울동부지사를 개소했다. 서울동부지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를 담당하게 되며 장애인 및 사업주에게 더 편리하고 빠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간 서울지역은 중구 소재 서울지사, 영등포구 소재 서울남부지사 등 2개 지사에서만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번 서울동부지사의 개소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서울 동부권역 장애인 및 사업주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가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